

광주일보 사진기자들 투혼이 담긴 역사의 현장



1971년 김대중 광주 공설운동장 연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4월19일 광주 공설운동장(현 무등경기장)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3선거헌을 통해 출마한 박정희 민주공화당 후보와 당내 경선을 통해 40대 기수론을 제창하며 나선 김대중 후보의 대결로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지만, 김 후보는 95만표 차이로 석패했다.



‘해방 광주’ 도청의 시민군

1980년 5월21일 오후, 무장한 시민군들이 도청으로 압박해 들어가자 계엄군은 이날 오후 5시30분 총퇴각했다. 5월22일 계엄군 퇴각 후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시민군들이 창문 밖으로 계엄군 퇴각을 확인하러 나온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 공권력에 맞선 투신

1988년 1월 8일, 박철웅 조선대 총장 일가 퇴진과 학원민주화운동 시위(1·8항쟁)를 벌이던 조선대학교 이광호(당시 4학년)씨가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본관에서 투신했다. 이씨는 나무에 떨어지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 이정도면 예뻐지?

1962년 5월28일, 광주 동방극장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제7회 호남예술제 고등부 군무 부문에 참가한 한 여고팀이 열연을 하고 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

1980년 5월23일, 시민들이 광주 전역을 장악한 지 이틀째인 이날 오전 도청앞 광장에는 모여든 5만여명의 인파와 경찰의 가스차·군용트럭 등이 뒤엉켜 승리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60년대 산업역군들

전남방직공장 여공들이 방직기를 통해 만든 실을 실패에 감고 있다. 1961년 1월 7일자 게재.



▶ ‘무등산 타잔’ 박흥숙

1977년 4월 21일 오후, 무허가 건물 철거반원 4명을 살해한 일명 ‘무등산 타잔’ 박흥숙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박씨는 그해 4월20일, 광주시 학운동 무등산 중턱 무당골에서 동구청 소속 철거반원 7명 중 4명을 살해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